

慶南地域 青銅器時代 後期 聚落의 立地形態에 따른 地域性 研究*

배 덕 환**

〈목 차〉

- I. 머리말
- II.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지의 특징
- III.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지의 특징
- IV. 취락 분석
- V. 맺음말

국문요약

경남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은 남강유역과 태화강·동천강유역을 중심으로 집중분포하며 양 지역은 주거지의 형태, 취락의 입지선정 등 제요소에서 분명한 지역성이 간취된다. 즉 남강유역은 범람원상에 휴암리형 주거지들이 분포하는데 비해 태화강·동천강유역은 구릉상에 울산형 주거지가 축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취락은 규모에 따라 대취락과 소취락으로 분류되며 각기의 입지특성에 맞게 취락의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본 글에서는 비교적 동시기의 대규모 취락이 집중분포하는 남강, 태화강·태화강유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주여지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물·연료·경지 등 물질적 조건의 충족 가능성과 생활의 안전성이 고려된 자연과의 관계에 따라 취락의 입지 및 주거의 형태적 상이로 표출되었다. 또한, 수계주변에 취락이 밀집하는 양상은, 하천이 단순한 물의 흐름이 아닌 우수와 유역의 조건이 유기적으로 관련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복잡한 지형요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각 수계의 독자적 특성에 맞

* 본 글은 『日韓の先史時代集落-GIS分析の可能性-』, 立命館大學グローバルCOE 프로그램國際シンポジウム, 2008. 2. 17의 발표문인 「GISを用いた韓國慶南地方の青銅器時代前期-後期の集落」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추어 발전양상을 달리 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수계, 남강유역, 태화강·동천강유역, 휴암리형 주거지, 송국리형 주거지, 울산형 주거지, 연암동형 주거지, 환호, 취락의 입지, 가시권

확인된 주거지만도 1,400동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상기 두 지역은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 남강유역은 범람원상에 휴암리형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취락이 조성되는데 비해, 태화강·동천강유역은 주로 구릉 상에 울산형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입지상 확연히 대비된다. 물론 환호, 지석묘의 축조 등 공통적인 요소도 일부 간취되기 때문에 두 지역의 취락에 대한 상호비교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청동기시대 후기문화의 변화양상 및 분포권을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지의 특징

경남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그 전 시기까지의 양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조·전기의 주거지는 노지의 축조방법에 따라 石造式과 豎穴式으로 대별되며, 내부시설로서 초석이나 주혈배치 및 벽구 유무에 따라 분포권 및 시기를 달리한다.

먼저, 石造式 爐址는 石棺式, 土壙圍石式, 石床圍石式 등 노지 주변을 돌로 두른 모든 시설을 총칭하며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石造式 爐址附住居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나 장방형, 방형이며 원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별 분포권은 서부경남은 진주 대평리 어은 1지구·옥방 5지구·상촌리 B·D 지구·평거동 등 남강유역과 낙동강유역의 밀양 금천리 등에서 조사되었으며 동부경남은 울산 구영리·창평동·신천동·외광리 등에서 소수 확인되었다.

이 중 남강유역의 石床圍石式 爐址附住居址에서는 초석과 단 시설이 확인되는데, 초석은 주혈을 파지 않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間의 배치가 정연하다. 초석은 1×2間的 상촌리 D지구 10호 주거지(방형)와 1×6間的 어은 1지구 110호 주거지(장방형)에서 나타나듯이 주거지의 규모와 비례하고 있다.

石造式 爐址附住居址의 시기 설정은 石床式 또는 圍石式이나의 여부와 토기의 문양구성 조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연구를 참고할 때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전기의 주거지는 조기와 달리 수혈식 노지를 채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거지의 규모와 평면형태에 따라 노지의 수와 위치는 달라지는데, (세)장방형 주거지는 대체로 노지의 수가 많고 偏在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비해,

방형 주거지는 주거지 중앙에 1기만 설치된다. 수혈식 노지는 석조식 노지보다 대체로 늦은 단계의 주거지에서 보이며, 서부경남은 대체로 휴암리형이나 송국리형보다 선행하지만 동부경남은 청동기시대의 종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채용된다.³⁾

Ⅲ.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지의 특징

1. 서부경남

1997년~2000년까지 실시된 진주 대평리유적의 발굴조사를 기점으로 상당수의 청동기시대 취락의 존재가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마산 진동, 김해 율하리 등에서 區劃墓리는 동시기의 분묘가 조사되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1월 현재까지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1097동에 이르며 그 시기도 초기~후기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나 주를 이루는 것은 휴암리형 주거지이다. 휴암리형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나 방형을 띠며 내부의 타원형 수혈과 주주혈의 배치에 따라 세분된다. 산청, 진주, 사천 등 남강유역에 약 400동 정도 분포하며, 그 외 서부경남 각 지역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이 중 남강유역의 휴암리형 주거지의 조사결과, 평면형태상 장방형→방형→말각방형으로의 변화상이 간취되며, 대체로 송국리형 주거지보다는 선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강유역에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는 이 유형의 주거집단은 환호를 설치하는 등 대단위 취락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특히 대평리 옥방 1·4지구에 조성된 2개소의 환호와 대규모 농경지, 옥 원석 및 가공재의 다량 출토 등은 기존의 소규모 취락에서 볼 수 없었던 보다 구체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송국리형 주거지는 타원형이나 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주거지로서 휴암리형의 분포권보다 거제·마산·김해·양산 등 동·남지역으로 확대된다. 남강유역에서는 휴암리형 주거단계에는 2개소의 환호취락이 조성되고 대평리 및 상촌리 전역에 주거지가 분포했던 것에 비해 송국리형 주거단계가 되면 대평리 옥방 1·7지구에 한정된다. 특히 옥방 1지구에서는 환호 외곽에 편재된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휴암리형 주거지를 의식하고 별도로 분리된 곳에 조성하였음을 의미하

3) 裴德煥,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嶺南의 靑銅器時代 文化』, 第14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千羨幸, 2007, 『無文土器時代 早期 設定과 時間的 範圍』, 『韓國靑銅器學報』創刊號, 韓國靑銅器學會

며 두 주거유형의 병존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두 주거유형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휴암리형 주거지가 선행하지만 일정시점이 지난 후 송국리형 주거집단이 병존을 하면서 공간적으로 분포권을 달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지상식건물이 대형화, 다양화, 집중화된다. 특히 휴암리형 주거단계에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고상식이 소수 확인되었으나 이금동의 신전, 목곡리의 창고, 남산의 망루 등 규모나 형태적 측면에서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지상식건물의 본격적인 성행시기로 추정된다.⁴⁾

2. 동부경남

서부경남과는 달리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외부돌출구가 부가되는 울산형 주거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외부돌출구, 벽구, 벽주, 노지, 주혈배치의 정연성 유무로 여러 가지 다양성이 공존하는데, 특히 평면형태상 확연히 드러나는 외부돌출구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일유적에서 공존하지만 없는 형태의 주거지가 더 많다. 외부돌출구의 유무는 공반유물로 볼 때 시간적인 선후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주거규모, 입지 등에서 차별화된 요소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취사선택된 시설로 생각된다.(그림 2)

한편 벽구는 한 벽~네 벽 모두를 두른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배수구, 벽체를 세우기 위한 기초구, 벽체 기초구 및 배수구의 병행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외부돌출구부 울산형 주거지의 C14年代를 oxCal V3 프로그램으로 변환한(그림 3)을 참고할 때, 경상북도 경주시와 접경인 울산시 북구 천곡동 굽마을 4호 주거지가 B.C. 1190년으로 가장 선행하며 남쪽인 울주군 외광리 8호 주거지가 B.C. 760년으로 약 430년의 시기 폭을 가진다. 물론 C14年代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나타난 결과만으로 외부돌출구부 울산형 주거지의 변화양상을 추정하면, B.C. 1000~900年代에 급증하며 B.C. 800年代에 정연한 주주혈과 벽주의 배치양상이 나타나고, 그 후 B.C. 700年代에는 벽구 내에 벽주 홈이 새로이 부가되는 양상으로 발전한다.

연암동형 주거지는 외부돌출구부 울산형 주거지+외곽주구의 형태를 띠며 주거지 내부의 구조는 울산형과 동일하다. 울산 연암동유적 보고서의 주거지 도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거지 및 외부돌출구를 먼저 조성하고 난 후 외곽주구를

⁴⁾ 裵德煥,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嶺南의 靑銅器時代 文化』, 第14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둘렀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연암동·구수리 등 울산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유형으로 울산형의 변화양상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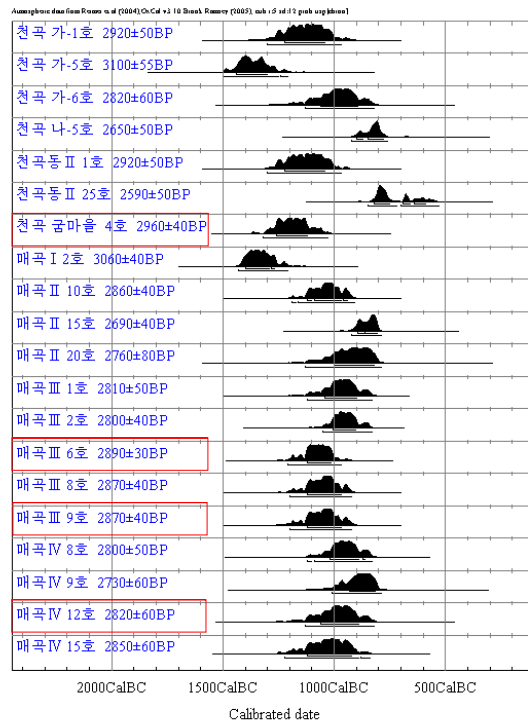


그림 2. 울산형 주거지의 C₁₄年代(□:외부돌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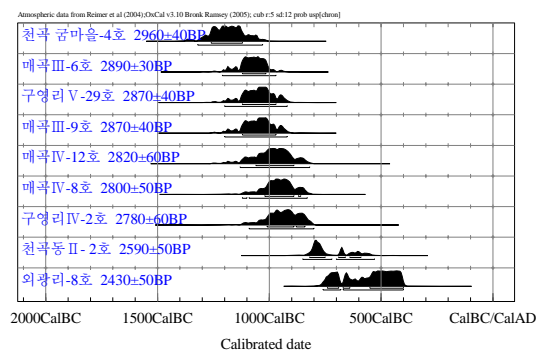


그림 3. 外部突出溝付 蔚山型住居址의 C₁₄年代

IV. 취락 분석

상기한 바와 같이 경남지역에서 비교적 동시기의 대규모 취락이 집중분포하는 지역은 휴암리형 주거단계의 남강유역과 울산형 주거단계의 태화강·동천강유역이다. 특히 두 지역은 평지(남강유역)와 구릉(태화강·동천강유역)이라는 입지상 차이뿐 아니라 하천을 따라 열상으로 취락이 분포하며, 각 취락 사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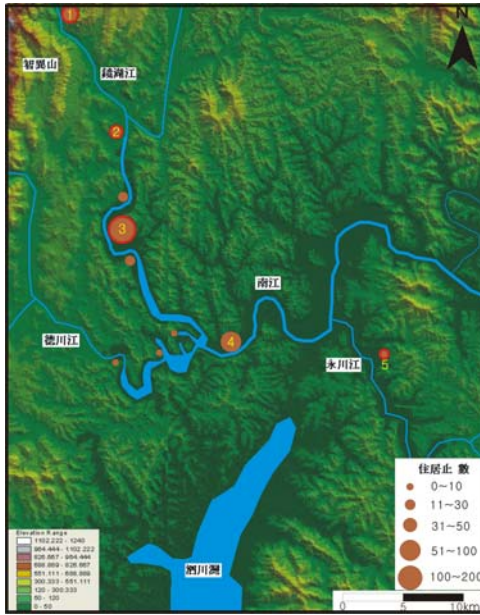


그림 4.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분포도
중요유적 : ①옥산리 ②사월리 환호
③대평리 ④평거동 ⑤이곡리

규모 및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감지되기 때문에 취락 분석 및 대비가 용이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두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의 입지 및 고도차에 의한 분포와 가시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강은 낙동강의 지류로서 경남 함양군 덕유산에서 발원하여 산청군을 지나 진주시에서 지류인 덕천강과 합류하며, 함양군 대신면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 주류길이 193.7km의 하천이다. 함양군과 산청군에서는 좁고 깊은 하곡을 통과하다 소남리부터 크게 곡류하면서 넓어지고, 대평리에서는 폭 1km 정도

의 넓은 범람원이 형성된다.⁵⁾ 상류의 산청 옥산리~하류의 진주 이곡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000평의 면적에 13개 유적이 집중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전시기의 주거지가 확인되나 가장 많은 수를 점하는 것은 휴암리형 주거지이다. 남강변에 위치한 각 유적의 입지는 산청 사월리와 진주 귀곡동 대촌은 구릉상에 입지하는데 비해, 산청 옥산리, 진주 대평리·상촌리·평거동·이곡리, 사천 본촌리 등은 하안의 범람원상에 위치하며, 규모상 전자가 소규모 취락, 후자가 대규모 취락의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4)

⁵⁾ 黃相一, 2002, 『南江 中流 大坪 沖積平野의 地形發達』, 『靑銅器時代 大坪·大坪人』, 國立晉州博物館

취락의 1차적인 형태는 특징적인 시설인 환호의 유무로 대별된다. 환호취락은 산청 옥산리·사월리, 진주 대평리 옥방 1·4지구·이곡리 등 5개 유적이 해당되며, 주거지의 수는 옥산리 50동 이상, 대평리 200동 이상으로 대규모인데 비해 사월리 환호는 4동만 확인되어 규모상 차이가 있다. 또한 환호 자체도 옥산리와 대평리 옥방 1·4지구는 폭과 길어도 넓은 뿐 아니라 주거지 중심의 다중환호인데 비해 사월리 환호는 1중 환호이다.(표 1)

표 1.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일람표

취락형태	유 적		주거지 수	계
환호취락	산청	옥산리	54	58
		사월리 환호	4	
	진주	대평리	210	217
		이곡리	7	
비환호취락	산청	사월리	5	21
		묵곡리	7	
		소남리	9	
	진주	상촌리	26	83
		내촌리	1	
		귀곡동 대촌	4	
		평거동	52	
	사천	본촌리	11	11

이 중 대평리는 2.5km의 직선거리상에 옥방 1·4지구 2개소의 동시기 환호 취락이 존재한다. 한정된 공간에 2개소의 취락이 다중환호와 목책을 조성하고 있으며 경작지를 나누어 경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⁶⁾

사행하는 남강의 분절지점 및 두 취락 사이의 경작지간 거리로 볼 때, 옥방 1지구는 환호 내의 7지구와 환호 외의 2·3·8·9지구와 함께 하나의 취락(편의상 이하 옥방 1유적)으로 통합 가능하며, 옥방 4지구는 환호 외의 옥방 5·6지구, 어은 1·2지구와 함께 또 다른 취락(편의상 이하 옥방 4유적)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5)

두 취락의 공통점은 ①방형의 평면형태를 띠는 다중환호, ②환호의 출입구 존재, ③환호 내·외 주거지의 분리, ④경작지 조성 등을 들 수 있으나 잔존양상

⁶⁾ 裵德煥, 2005, 『南江·太和江流域의 靑銅器時代 據點聚落 研究』, 『文物研究』제9호, 동아시아 문물연구학술재단

으로 볼 때, 취락규모는 옥방 1유적이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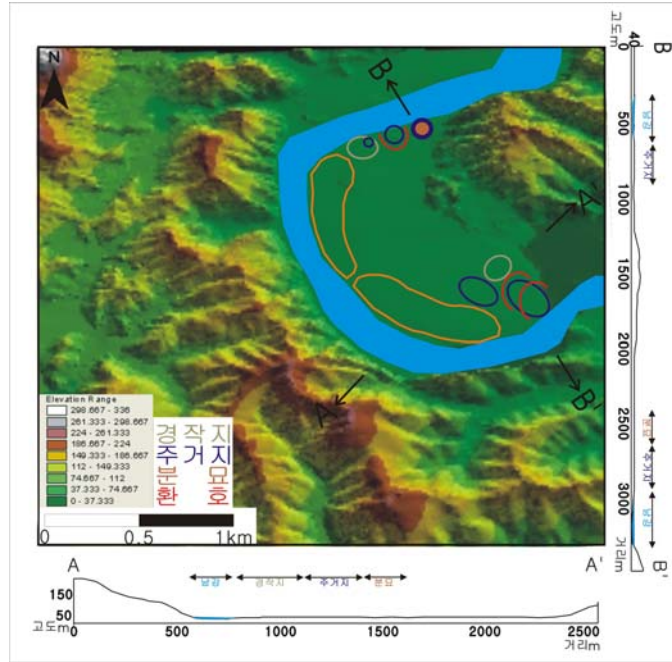


그림 5. 진주 대평리유적의 고도에 따른 지형분석도

2. 태화강·동천강유역

태화강은 울산시 상북면 가지산(1,240m)에서 발원하여 주변 소지류를 합치면서 동류하다 울산시 동쪽에서 불국사 단층선곡을 남류하는 동천강과 합류하여 울산만으로 유입되는 주류 길이 46km의 하천이다. 태화강 중류부 연양 부근에서는 선상지 및 비교적 넓은 평야가 전개되고, 중생대 퇴적암인 대구층을 지나는 동안 협곡을 형성하여 하천의 양안에 단구를 만들었으나, 울산시 부근에서 충적 평야의 폭이 넓어져 최대 3~4km에 이른다. 태화강 중·하류부 양안의 비교적 넓은 하안단구 위에 청동기시대 취락들이 집중분포하고 있다.⁷⁾

각 유적의 입지는 서부리 남천·입암리를 제외하곤 전부 구릉지나 개석곡지에 위치하며 평지로부터의 비고는 그다지 높지 않아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

⁷⁾ 黃相一·尹順玉, 2000, 『蔚山 太和江 中·下流部の Holocene 自然環境과 先史人의 生活變化』, 『韓國考古學報』43, 韓國考古學會

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태화강·동천강의 규모가 작고 유량이 적기 때문에 자연제방과 하안단구 등 하천지형의 발달이 미약하고, 바다의 영향이 미치는 내만환경이었기 때문에 서부경남지역과는 달리 하천의 범람원이나 충적대 지상에 형성된 취락이 드물다. 유적의 분포는 강의 곡류와 구릉의 분절 등에 의해 군을 이루며, 일부 유적은 강을 경계로 마주보고 형성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적들이 태백산맥 서쪽 구릉에 집중분포하고 있는데, 한랭한 북서계절풍을 정면으로 받는 혹독한 겨울을 피하고, 여름의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입지선정으로 생각된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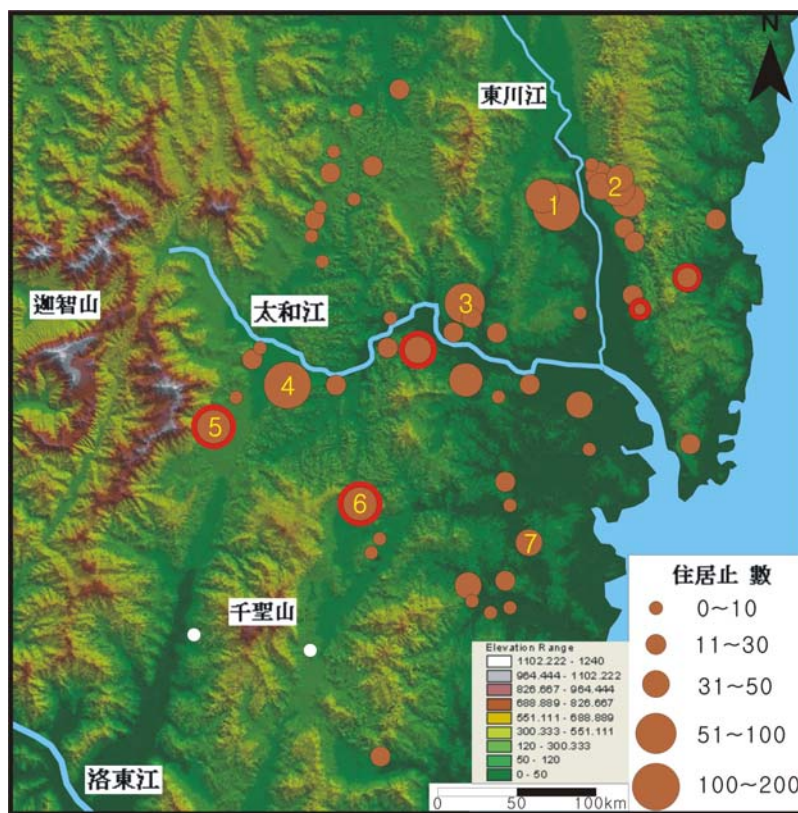


그림 6. 태화강·동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분포도
 중요유적 : ①천곡동 ②매곡동 ③구영리 ④신화리 ⑤방기리 ⑥검단리 ⑦외광리

취락의 형태는 서부경남과 동일하게 특징적인 시설인 환호를 기준으로 환호취락과 비환호취락으로 나뉜다. 전자는 방기리·천상리·검단리·연암동·신현동 등 5개 유적이 해당하며 주거지 수는 방기리 49동, 천상리 44동으로 남강유역의 환호취락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오히려 비환호취락 중 신화리·무거동 옥현

·매곡동·야음동 등이 취락의 규모가 크다. 이들 유적은 하천의 분절과 취락의 근접도, 구릉의 연속성 등을 참고할 때, 대취락 주변에 소취락들이 산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⁸⁾

표 2. 태화강·동천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일람표

행정구역	유적	주거지 수	계	
울산시	북구	매곡동 등 27개소	461	1,398
	중구	다운동 등 9개소	55	
	남구	야음동 등 4개소	133	
	동구	화정동 등 2개소	14	
	울주군	교동리 등 37개소	661	
	온양읍	외광리 등 5개소	74	

3. 취락의 입지

남강유역의 대평리는 전술한 것처럼 동시기에 2개소의 취락이 존속한 것으로 본다면, 한정된 범위여서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이다. 그 중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가경지의 확보이다. 주거의 응집도가 높아질수록 인구수는 더 많이 늘어나며 필요한 경지의 면적도 넓어진다. 경지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경지와외 거리가 멀어짐을 반영한다. 이러한 물리적인 거리마찰은 1차적으로 농업의 집약도에 반영되며, 2차적으로는 토지생산성에 반영됨으로써 영농의 가능성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지리학에서는 주거지에서 경작지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이면 분촌화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⁹⁾ 옥방 1유적의 중심부에서 경작지까지의 거리는 약 800m로서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점차 경작지 가까스로 주거지가 이동하게 되었으나 점진적인 주거의 이동으로 인해 결국은 가경지 및 주거입지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주거의 입식입지가 가속화되면 경지 또는 가경지의 여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간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대평리와 같은 경지-물 복합체는 농업생산을 최대화하기 위한 경지배열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가경지를 최대화하고, 비생산공간을 최

⁸⁾ 裴德煥, 2005, 『南江·太和江流域의 靑銅器時代 據點聚落 研究』, 『文物研究』 제9호, 동아시아 문물연구학술재단
⁹⁾ 鄭鎮元, 1991, 『韓國의 自然村落에 關한 研究-形成과 形態를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別號 13,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論文集

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입지를 밀어내어 일종의 분
 촌화가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지-물 복합체의 전형은 남강 하류의
 진주 평저동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며(그림 7), 진주 이곡리에서는 앞 시기
 의 환호를 폐기하고 수로 등 논 관련 유구를 조성하면서 취락의 입지이동이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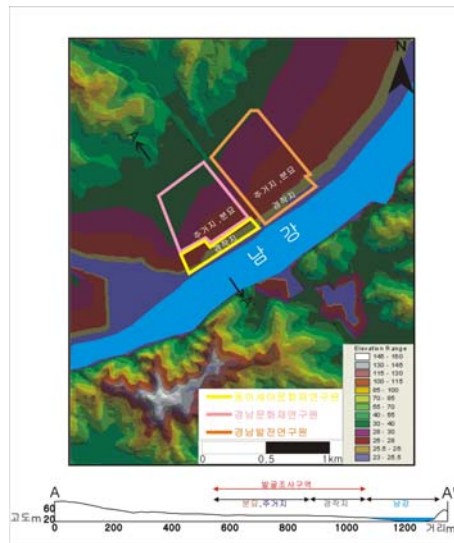


그림 7. 진주 평저동유적의 고도에 따른 지형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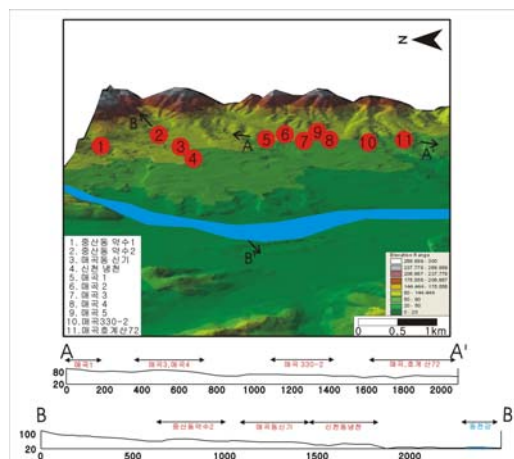


그림 8. 울산 매곡동 일대 유적의 高度에 따른 지형분석도

¹⁰⁾ 裴德煥, 2007, 『青銅器時代 環壕聚落的 展開樣相』, 『石堂論叢』第39輯, 東亞大學校 石堂學術院

그에 비해 태화강·동천강유역에서는 구릉사면이나 정상부는 주거역, 비교적 평탄한 곡간이나 저지대에는 수전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자연조건의 제약 아래에 있는 경지의 공간적 한정성 때문에 주거역과 생산역의 입지가 달라진 것인데, 특히 수전의 경우는 지형의 저평성과 물의 이용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입지의 한정성은 더욱 심화되지만, 심층풍화로 배수가 양호하고 수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평지가 부족한 태화강·동천강유역에서는 가경지 확보차원에서 구릉이나 사면에 주거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8)

남강유역 및 태화강·동천강유역의 취락들이 환호축조 및 농경지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노동력의 투입은 공동체의 응집력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개인 또는 구성원 간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회적, 공간적 응집이 되며, 노동과 토지에 대한 각 개인의 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책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리나 지배의 편리 내지 효율을 위해서는 일정한 강제성이 요구된다.¹¹⁾ 따라서 개인 즉 구성원에게는 합의·노력의 공동성이 요구되어 참여하게 되며, 수장은 강제의 공동성을 발휘하여 집단의 단결력유지나 공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인 환호의 굴삭 및 농경지 개간 등을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취락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4. 가시권

양지역 유적의 가시권은 남강유역은 진주 대평리 일대, 태화강·동천강유역은 단일지역 중 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울산 북구 매곡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진주 대평리 일대는 남강의 사행지점에 많은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 중 다중환호취락인 옥방 1유적에서는 자연경계인 구릉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어 서쪽은 가시권이 상당히 짧은 편이지만 동남쪽은 상촌리와 강을 경계로 미주보고 형성되어 있으며 최대관측거리도 약 4.3km로 비교적 넓게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옥방 4유적은 소남리와 약 2km 거리에 위치하여 충분히 조망가능하다.(그림 9)

울산 매곡동 일대는 동천강을 경계로 동쪽에 11개 유적, 서쪽에 1개 유적이 위치하며 총 460동의 주거지가 밀집분포하고 있다. 이 중 중앙부에 위치하는 매곡동 2유적에서 신천동까지의 가시권은 약 3km 정도여서 서로를 충분히 조망할

11) 鄭鎭元, 1991, 『韓國의 自然村落에 關한 研究-形成과 形態를 中心으로-』, 『地理學論叢』別號 13,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論文集

수 있으며 그 외 하천의 방향으로서는 북쪽은 약 7.2km, 남쪽은 약 4.5km이상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천곡동에서는 매곡동 배후의 구릉을 최대관측거리로 상정할 때, 약 4~6.3km의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동천강 양안에 입지하는 이들 유적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같은 생활반경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그림 10) 이는 진주 대평리에서 2개소의 환호취락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생각되나 입지특성상 주변 구릉에 산재분포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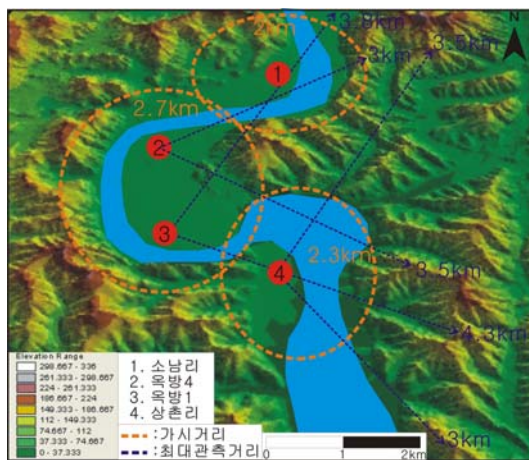


그림 9. 진주 대평리 일대의 가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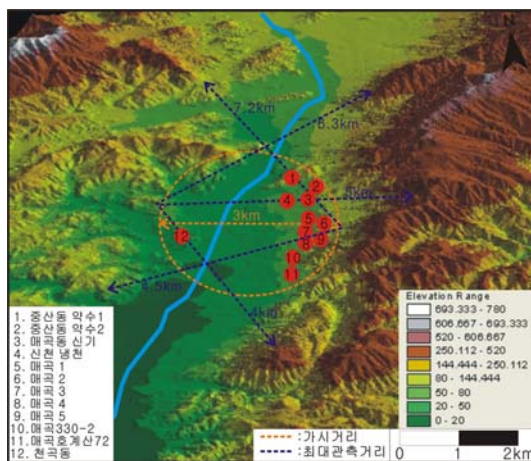


그림 10. 울산 매곡동 일대의 가시권

상기 유적들은 모두 상당한 가시권을 확보하고 있어 주위의 많은 지역을 조망 가능하거나, 반대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관측 가능하다. 이 점은 방어를 위해 가장 유리한 지역을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거나 다른 지역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을 택해 경관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기존의 자연경관을 새롭게 의미화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또한 환호의 축조를 통해 강조되었던 공동체 의식의 강조와 이를 통한 집단내부의 권력행사가 주변 지역에 대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통제 되었으며, 일상생활을 통해 시각적으로, 그리고 몸의 움직임에 따라 환호를 경험함으로써 자연화되고 중립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예는 울산 검단리에서도 나타난다. 검단리는 구룡사면부 중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선정하여 주변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검단리 주변에 대한 GIS를 통한 지형분석 결과, 주변 일대에 검단리만큼 양호한 입지조건을 보이는 지형이 없다는 것은 당시인들의 취락입지 선정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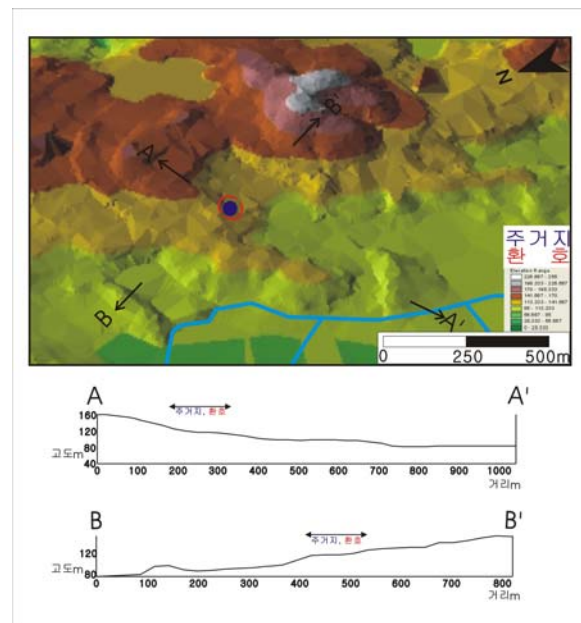


그림 11. 울산 검단리유적 일대의 지형

12) 金鍾一, 2005, 『景觀考古學의 理論的 特徵과 適用可能性』, 『景觀의 考古學』,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第1回 國際學術會議

이상과 같은 경관고고학적 접근은 수동적으로 해석되던 환호의 기능을 능동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자연에 속해 있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려면 자연과 유기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자연관 반성과 일치한다.¹³⁾

V. 맺음말

상기한 바와 같이, 경남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의 취락형성의 1차적인 계기는 물질적 조건을 토대로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며, 그것에 규정된 상부구조적 제조건 및 제약조건으로서의 자연환경적 기반들이 복합적인 형성요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취락형태를 조형하는 것은 아니고, 응집력의 계기로서의 공동성(communality), 형성주체와 규모중대의 원천적 소재로서의 인구요인(population), 제약인자로서의 지형조건(terrain potential) 등이 복합적 역력이 되어 역사적 관성과 생태적 한정 속에서 구체적인 취락형태로 표출되었다. 특히 인구, 공동성 및 지형조건이라는 3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주거의 응집도와 응집규모가 달라지는데, 인구규모가 크고 공동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형조건이 응집에 좋은 환경이 될 수록 주거의 응집도와 응집규모가 증대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⁴⁾

특히 지형조건은 물리적인 틀로서 취락입지와 영역 및 형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근본적으로는 취락입지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성장과 발전을 시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취락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공간적인 틀로서 작용함과 동시에 토지이용의 가능성과 내용을 규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경남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의 입지는 정주의지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물·연료·경지 등 물질적 조건의 충족 가능성과 생활의 안전성이 고려된 자연과의 관계에 따라 입지 및 주거의 형태적 상이로 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강유역과 대화강·동천강유역 등 수계주변에 취락이 밀집하는 양상은, 하천이 단순한 물의 흐름이 아닌 유수와 유역의 조건이 유기적으로 관련

13) Hans Jonas(이진우 譯), 1994, 『책임의 원칙 :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4) 鄭鎭元, 1991, 『韓國의 自然村落에 關한 研究-形成과 形態를 中心으로-』, 『地理學論叢』別號 13,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論文集

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복잡한 지형요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각 수계의 독자적 특성에 맞추어 발전양상을 달리 한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또한 남강유역은 퇴적지형, 대화강·동천강유역은 침식지형에 취락이 입지하는데, 이러한 지형의 차이가 결국에는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쳐 취락의 입지선정과 주거형태의 相異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Hans Jonas(이진우 譯), 1994, 『책임의 원칙: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논문

- 鄭鎮元, 1991, 『韓國의 自然村落에 關한 研究-形成과 形態를 中心으로-』, 『地理學論叢』別號 13,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論文集
- 崔喜萬, 2000, 『傳統聚落의 地形的 特性과 住居立地 適合性 分析』, 慶北大學校大學院 地理學科 博士學位論文
- 黃相一·尹順玉, 2000, 『蔚山 太和江 中·下流部의 Holocene 自然環境과 先史人의 生活變化』, 『韓國考古學報』43, 韓國考古學會
- 黃相一, 2002, 『南江 中流 大坪 沖積平野의 地形發達』, 『青銅器時代 大坪·大坪人』, 國立晉州博物館
- 金鍾一, 2005, 『景觀考古學의 理論的 特徵과 適用可能性』, 『景觀의 考古學』,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第1回 國際學術會議
- 裴德煥,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嶺南의 青銅器時代 文化』, 第14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 裴德煥, 2005, 『南江·太和江流域의 青銅器時代 據點聚落 研究』, 『文物研究』제9호, 동아시아문화연구학회
- 裴德煥, 2007, 『青銅器時代 環濠聚落의 展開樣相』, 『石堂論叢』第39輯, 東亞大學校 石堂學術院
- 千羨幸, 2007, 『無文土器時代 早期 設定과 時間的 範圍』, 『韓國青銅器學報』創刊號, 韓國青銅器學會

Abstract

Study on Regional Character of Settlement Location at the Latter Bronze Age in Gyeongnam Province

Bae, Duck Hwan

The settlements of the latter Bronze Age in Gyeongnam province are intensively distributed in Nam river valley and Taehwa · Dongcheon river valley. The regional character is identified in points—the shape of dwelling, selection of its location. That is, Hyuamri-type dwellings range around Nam river but Ulsan-type dwellings in Taehwa · Dongcheon valley are constructed on hills. Specially, this dwellings are divided into large and small classes by scale. The magnitude of settlement is expanded according to each regional character.

The first opportunity of settlement building is the social-economic factor based on matter, I think, the natural environmental foundation as restriction and high requirements acts on complex conditions. Moreover, the united factors (communality as momentum of cohesion, population as main group and cause of scale enlargement, terrain potential as condition) emerge from physical settlement formation in historical inertia and ecological limitation. The living cohesion degree and scale compoundly effected by three factors become different. More population, higher communality and better environment, I think that the living cohesion degree and scale become larger.

First of all, topographical conditions have an direct effect on location, field and shape of settlement. Basically these stipulations creates not only decisive factor choosing settlement location but also developmental result. Besides thes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determinating possibility and substance of land utilization as well as spacial formation deciding size

and shape of settlement.

In conclusion settlement location at the latter Bronze Age in Gyeongnam province expresses the placing and living difference of formation according to relation with nature to consider security and possibility filling up water, fuel, cultivated land as domiciliating will. Moreover the aspect that the settlement distributed around river as Nam river and Taehwa·Dongcheon river is the aggregate of complex topographical factor systematically connected with flood and basin. The settlement of Nam river valley is constructed on sedimentary ground. The aspect of Taehwa·Dongcheon river is identified in erosive ground. I think that this topographical difference finally influences living formation and thinking method. Further choice and shape of settlement become different.

Key words : Nam river valley, Taehwa·Dongcheon river valley, Hyuamri-type dwelling, Songgukri-type dwelling, Ulsan-type dwelling, Yeonamdong-type dwelling, round dugout, settlement location, visibility range